

## 북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프로젝트

- WHO-[사]통일문화네트워크-통일부 협력을 통한 -

- ◆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-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건안보의 중요성, 그간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경직적 태도, 최근 북한의 보건 역량 강화 수요 등을 고려해 우리 단체가 WHO와 다년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임.
  - 동 프로젝트는 WHO 주관의 다국적 프로젝트에 따라서 북한 보건 인력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보건 영역에서의 국제표준을 학습하고 수용하고 북한의 보건 역량을 자생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려는 것임.
  - 동 프로젝트는 총 5년의 중기 프로젝트 중 1년 차 계획으로 WHO가 북한 측과의 소통 하에 마련된 것으로, 북한 측의 참여를 전제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요청함.

### 1. 배경

- 북한은 코로나19 국경 봉쇄와 국제기구 지원 감소로 북한 보건 의료 부분의 위기 증대
  - 팬데믹 시기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여 백신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WHO 데이터에 따르면, 2021년 필수 예방접종률이 42%로 급락했고, 2022년에는 사실상 중단됨.
  - 또한, 북한은 백신 보관과 이동을 위한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이 전력난과 팬데믹 시기 동안 유지보수가 중단된 상태로 백신의 분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.
  - 국제사회 지원의 중단은 영양실조와 직결되며, 설사성 질환의 급증과도 연관이 있음.

- 북한은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재난 발생으로 식량 및 보건 악화를 초래하는 위기 상황 반복
  - △태풍 2020년, △봄 가뭄 2022년과 2023년, △홍수 2024년 등
  - 태풍과 홍수는 식량난 가중, 식수원 오염, 수인성 감염병 증대로 이어짐.
- 북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 거부
  - 2024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코로나19 이전 평균보다 약 7% 정도밖에 되지 않고, 우리나라의 지원은 완전히 중단됨.
- 최근 북한 김정은은 ‘보건 혁명’을 선언하고, 보건 현대화와 지방 발전 20×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북한의 보건 역량 역부족
  - 평양종합병원을 개원했으나, 보건 인력 역량 한계가 드러남.
  - 지방 보건 현대화 시범 단위로 선정된 지역 병원 건설이 연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.

## 2. 北 보건안보 역량 강화 필요성

- 감염병은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전파(Infectious Diseases Know No Borders)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·탐지·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함. 특히, 이웃 국가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.
-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간 소통과 협력의 한계는 한반도 전체 보건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.  
※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한반도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 예임.

- 지속 가능한 소통과 협력 체계 구축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, 생명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합법적

이며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함.

- 코로나19 이후, 2023년 말 개설된 북한의 ‘중앙질병예방통제소(질병관리청)’와 2025년 11월에 개원한 ‘평양종합병원’은 북한의 보건안보 체계 구축을 강화하려는 조치로, 이를 위해서는 보건 인력 역량 강화가 시급함.  
⇒ 이에 따라,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는 북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WHO\*에 제안했고, WHO는 이 제안을 수용하여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의 보건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설계함.

\* WHO와 GSPN(Global Strategic Preparedness Network)에서 이행

※ WHO GSPN과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[붙임 1]에 첨부

※ WHO GSPN에서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로 제시한 프로젝트 관련 원본은 [붙임 2]에  
첨부

### 3. 북한의 SPAR 이행 현황 및 JEE 제출 의향

- 북한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WHO에 SPAR를 매년 제출하고 있음.
  - SPAR(States Parties Self-Assessment Annual Reporting)란, 유엔 가입 165개국(6개 WHO 지역사무소)이 매년 국제보건규칙(2005)에 기반을 둔 자체 평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임.
  - SPAR 도구는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국내외 감염병 탐지·평가·통지·보고 및 대응하는 데 필요한 15가지 국제보건규칙(IHR) 역량에 대한 35개 지표로 구성됨.

※ [붙임 4] 북한의 2024년 SPAR 결과
- 그러나 북한은 JEE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.
  - JEE(Joint External Evaluation)란,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예방·탐지·신속한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자발적인 외부 합동 평가임.

- \* 국내 자체 평가(SPAR) 후 외부 보건 전문가들이 이 자체 평가를 재평가함.
- JEE는 19개 분야의 보건 기술 분야의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함에 따라 각국의 보건 안보 역량 격차를 파악할 수 있음.
- \*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 대부분 제출함.

- 북한은 JEE를 제출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, 우리는 북한이 JEE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.
  - 먼저 JEE 제출을 위한 북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 필요
  - 다음으로 북한의 감염병 △예방(법 · 재정 · 국제보건규칙 담당 · 항생제 내성 · 인수공통감염병 · 식품안전 ·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· 예방접종), △탐지(국가 실험실 체계 · 감시 · 보건 인력), △신속 대응 (보건위기상황 관리 · 공중보건과 군/경찰 당국과의 연계 · 보건 서비스 제공 · 감염병 예방 및 통제 · 위기 소통 및 지역공동체 참여), △국제보건규칙 관련 위험 요소 · 공항 등 입국 지점(Point of Entry, POE) 및 접경 지역 보건(입국 지점 및 접경 지역 보건 · 화학전 · 방사능 위기상황) 등에 관한 인프라 강화 필요
- ※ JEE 평가 세부 목차 [붙임 5]에 첨부

◆ 동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글로벌 보건안보 차원에서 소통 가능한 데이터로서, 현 수준 북한의 보건역량을 평가하고 향후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핵심 데이터로 기능 할 것으로 기대됨.

#### 4. 북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프로젝트 계획

-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와 WHO는 북한의 JEE 제출을 위하여 《북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5개년 계획 중 일차년도 계획》을 제안하고자 함.
  - 국제보건규칙(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, IHR) 기준으로 민 · 정부 · 국제기구 · 군 등 다 부문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보건안보 역량을

갖추어 공중보건 위기상황 예측 및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

※ 다 부문(Multi-sectoral) 협력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.

- △보건안보를 위한 예측 능력과 부문 간 거버넌스 구축, △원-헬스(One Health) 실현,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비하기 위한 민군 협력, △보편적 의료보장(Universal Health Coverage, UHC) 실현, △지속 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, △2026년 11월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연구 및 실천 결과를 전파하고 행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학습 플랫폼 구축
- WHO와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워크숍 개최, 북한의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사업, 국가 간 사례 발표로 진행할 계획임.

※ 세부 수행 계획과 예산은 [붙임 3]에 첨부

[붙임 1]

**WHO-[사]통일문화네트워크  
《북한 보건안보 역량 강화 5개년 이행 계획》 협의 경과**

일시	주요 내용
2018~201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WHO 집행이사회, 세계보건총회에서 Ludy Suryaranto(Unit Head for Multisectoral Engagement for Health Security at WHO headquarters in Geneva)와 파트너십 형성</li></ul>
2020~2023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코로나19 이후 WHO는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에 &lt;WHO GSPN&gt; 설립 관련 브레인스토밍 팀 참여 요청</li><li>(사)통일문화네트워크가 WHO FENSA 프로세스를 통해 WHO 비정부기구(Non-State Actor)로 등록하여 WHO GSPN 멤버 공식 인증</li><li>글로벌 보건 협력체 및 국가 등에 WHO GSPN 멤버 독려</li></ul>
2024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WHO GSPN Ludy Suryanto와 Romina Stelter가 한국을 방문하여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와 미팅하여 남북보건협력 방안 등 협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는 현재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 WHO의 역할 중요성 강조</li><li>(사)통일문화네트워크는 WHO 측에 북한 보건 역량 강화 프로젝트 설계 요청</li></ul></li></ul>
2025년 상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WHO 내에서 북한의 보건 역량 강화 관련 수요 파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WHO는 북한인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파악</li></ul></li></ul>
2025년 하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WHO가 북한 질병관리청장과 보건 협력 의사를 타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보건안보 역량 강화 수요 확인</li><li>북측, 글로벌 보건 환경 및 기준에 관해 알고 싶다는 협력 의사 표명</li></ul></li><li>북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WHO가 여러 국가의 참여 독려</li><li>WHO가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에 협약서 송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추진 계획</li><li>예산 등 포함</li></ul></li></ul>